

이단상[李端相: 1628~1669]

조동영

본관이 연안(延安)인 그의 자는 유능(幼能)이며, 호는 정관재(靜觀齋) 또는 서호(西湖)이다. 그는 좌의정 이정귀(李廷龜)의 손자이며 대제학 이명한(李明漢)의 아들이자 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의 외손이다. 1648년(인조26)에 진사시(進士試)에 장원하고, 이듬해에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에 설서(說書) · 대교(待敎) · 봉교(奉敎) · 부수찬(副修撰) · 교리(校理) 등을 역임하면서, 서연(書筵)에 나아갔다. 여러 차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정랑(正郎)을 지내고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지제교(知製敎)를 겸하기도 하였다. 1655년(효종6)에 유능한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만 전념케 했던 사가독서(賜暇讀書)를 거친 뒤 대간(臺諫)에 들어가 구애됨이 없이 정론(正論)을 폈다.

김홍욱(金弘郁)이 강빈(姜嬪)의 신원(伸冤)을 청하였다가 장살(杖殺)된 일에 대하여 그의 억울함을 극언(極言)하여 효종(孝宗)의 탄식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훗날 결국 김홍욱을 복관(復官)시키게 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던 일도 그 일환이며, 조정에서 영녕전(永寧殿)을 수개(修改)하려 하면서, 정전(正殿)을 10실(室)로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협실(夾室)에 있는 여러 조위(祧位)를 일체 정전에 봉안하고, 협실에 신주를 모시는 제도를 폐지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소하여, “이렇게 할 경우 고제(古制)를 조금이나마 남겨준 조종조(祖宗朝)의 유의(遺意)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조위에 계신 열성(列聖)의 위령(威靈)들께서도 필시 정전의 합사(合祀)하는 반열에 끼이게 되는 것을 스스로 불편하게 여기실 듯합니다.”라고 극언했던 일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응교(應敎) 남구만(南九萬)과 한동안 격론을 벌인 일이 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또 그는 일찍이 전라도지방을 두루 살펴 기근이 심한 고을을 구제하게 한 바 있거니와, 효종(孝宗)의 승하(昇遐)로 정국(政局)이 변하자, 두문불출하고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잠시 청풍부사(淸風府使)를 지낸 적이 있으며, 이어 응교를 거쳐 인천부사(仁川府使)를 역임한 일이 있다. 훗날 공교롭게도 그의 아들 이동보(李同甫)가 인천현감(仁川縣監)으로 부임하게 되자,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이 송별하는 서문을 써 주면서 그의 선친이 이곳을 맡아 선정

(善政)을 베풀었던 일을 언급한 바 있다. “그분이 이 고을을 다스리자 1년이 되기도 전에 백성들이 덕스러운 정사를 노래하고 사모하여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으니, 인(仁)을 행한 효과는 이처럼 신속하고 오래 보존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그의 선정을 기리는 한편, “이제 동보가 이 고을에 가면 지난날 정관(靜觀) 선생의 교화를 받았던 부로(父老)들 중에 아직 살아 있는 자가 있어 동보의 의표(儀表)가 정관선생과 완전히 똑같음을 보고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말하기를, ‘우리를 어루만져 주겠네! 선대부(先大夫)의 유업을 실행하겠네!’라고 할 것이다.”하면서 그를 격려하였다.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송준길(宋浚吉)은 그를 천거하면서, “경연(經筵)을 열 때에 문학(文學)을 한 선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고, 또 “이단상은 학문이 해박하고 식견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먼 시골에서 지내고 있으니 아까운 사람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예조판서 조복양(趙復陽)도 “조정(朝廷)의 신하들 중에 경학(經學)이 이단상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땅히 불러들여 시강(侍講)하는 자리에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한 기록이 《실록(實錄)》에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의 학문과 덕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이단상은 이를 사양하고 양주 동강(東岡)으로 은퇴하였다. 그 뒤 승지(承旨)와 병조참지(兵曹參知)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고, 1669년에 부제학(副提學)으로 서연관(書筵官)을 겸했으나 곧 사양하고 물러났다.

그는 또 시문(詩文)에도 능했던 듯하다. 《일성록(日省錄)》 1797년(정조21)조를 보면, 반열에 참석했던 조관(朝官)과 유생의 응제 시권(試券)을 채점하여 내리고, 입격(入格)한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린 기록이 있다. 이때 부제(賦題)로 삼은 “붉은 구름 한 뭉치가 태양 곁에 펼쳐졌네[紅雲一朵日邊開]”는 부제학 이단상이 지은 “남쪽나라 귀한 손이 바다를 건너오니[南國星槎渡海來], 붉은 구름 한 뭉치 태양 곁에 펼쳐졌네[紅雲一朵日邊開], 천추의 큰 의리를 아는 이 없어[千秋大義無人識], 석실산 앞에서 통곡하며 돌아오네[石室山前痛哭廻]”라는 시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글은 김수흥(金壽興)을 풍자하여 지은 것으로, 명(明)나라의 관상선(官商船)에 타고 있던 임인관(林寅觀) 등 95인이 1667년(현종8)에 일본으로 가던 도중 표류하여 제주(濟州)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김수흥이 이들을 청나라로 압송할 것을 주장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겨 지은 것이다. 그의 작품 자체도 그렇거니와 그의 작품 중 한 구를 부제로 삼아 임금이 직접 글을 짓게 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송자대전(宋子大全)》을 보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친구

있던 그에 대하여 “정관재가 세상에 있던 날에는[靜觀臨世日], 사람들이 봉황새를 양지에서 본 듯했고[人觀鳳朝陽] 나무를 칠 때 피꼬리가 벗을 구하듯 했건만[伐木鶯求友], 산에 묻히자 이젠 구슬이 빛을 감추고 말았네[埋山玉掩光]”라고 읊고 있다. 이 글은 그의 아들 동보(東甫)의 부탁으로 그의 묘명(墓銘)을 지어주면서 그의 요청에 따라 오언율시(五言律詩)로 화답한 것인데, “평생을 추억하니 감개의 눈물을 금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그와의 교분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1680년(숙종6)에 민정중(閔鼎重)의 건의로 이조참판 겸 경연,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추증되고, 다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추되었으며, 그의 문하에서는 아들 희조(喜朝)와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임영(林泳) 등의 학자가 배출되었다. 일련의 기록을 보면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여겨진다.

끝으로 《현종실록(顯宗實錄)》에는 “신병(身病)을 이유로 사직하고 양주(楊州)에 물러나 살면서 여러 차례 불러도 벼슬을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으니, 사람들이 명리(名利)에 담박하다고 하였다.”라고 적고 있는데 반해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1669년(현종10) 조에는 <전 부제학 이단상의 졸기(卒記)>라는 제목하에, “전 부제학 이단상이 졸하였다.”라고 쓰고, “그가 강론한 견해는 대부분 명확하고 투철하였으므로 한 때의 사류(士類)들에게 존중을 받았으나, 불행하게 일찍 졸하였으니, 애석하다. 임종할 때 유소(遺疏)로 홀륭하고 덕 있는 이를 초치하고 큰 사업에 더욱 힘쓰라고 주상에게 권하였으며, 또 장식(張栻)의 말을 인용하여 남을 믿고 맡길 때는 일신의 편견을 막고, 남을 좋아하고 미워할 때에는 천하의 이치에 공변되게 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어 약을 하사(下賜)한 은전(恩典)을 사양하였다.”라는 기록에서도 그의 인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과 인천의 학산서원(鶴山書院)에 배향되어 있으며, 저서로는 《대학집람(大學集覽)》, 《사례비요(四禮備要)》, 《성현통기(聖賢通紀)》, 정관재집(靜觀齋集)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